

## Robert Vannoy) , 신명기, 강의 10B

© 2011, Robert Vannoy 박사 , Perry Phillips 박사, Ted Hildebrandt

### 신명기 12장, Halwarda의 기사 에서 예배의 집중화

#### III. 예배의 집중화와 신명기 날짜에 대한 의미

Halwarda의 “주께서 선택하실 장소” 기사

마지막 클래스에는 로마숫자 III를 소개했습니다. “ 예배의 집중화와 신명기 시대의 의미” 이다 . 제가 여기서 할 일은 D. Halwarda 라는 사람이 쓴 이 주제에 대한 훌륭한 기사라고 생각되는 기사의 내용을 먼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 그는 약 10년 전 40대 초반에 세상을 떠난 네덜란드 구약성서 학자였습니다. 그는 죽을 당시 젊은 학자였으며 출판을 시작하고 엄청난 일을 하기 시작했지만 주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는 네덜란드어로만 볼 수 있는 이 작은 책에 이 문제에 대한 기사를 썼습니다. 나는 그것의 본질을 요약했고, 적어도 처음에는 그가 문제를 훌륭하게 설정하고 그것으로부터 관련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당신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 “주 너의 하나님 선택하실 곳” 이다. 이제 당신은 그것이 신명기 12장에 나오는 것임을 인식합니다 .

1. 문제의 진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현대 구약

연구의 근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성경 독자들은 거의 없지만 사실입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주장을 조금 과장하고 과장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하는 것에도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구약성서 연구의 근본 문제는 '주 너의 하나님은 택하실 곳'이라는 문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합법적인 예배 장소에 관한 이 문구가 벨하우젠의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작업의 첫 번째 부분(훗날 그의 책이 된)의 핵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프롤레고메나(Prolegomena)*. 그 작업의 핵심은 이 문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Halwarda 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연구[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서문* ]는 구약 연구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었으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출판 이후에 구약성경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방법과 연구. 현재까지 여전히 압도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벨하우젠 덕분에 신명기 12장은 성경에 대한 완전히 파괴적인 비평의 발판이 되었지만 구약성서의 내용은 거의 온전하게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Halwarda가 하고 있는 일은 Wellhausen의 전체 JEDP 가설의 핵심인 신명기 12장에 대한 Wellhausen의 해석에 엄청난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할와르다(Halwarda)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 주목할 만한 점은 벨하우젠이 신명기 12장에 대한 주석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신명기 12장은 대부분의 성경을 믿는 주석가들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제물이 중앙 예배 장소에 있는 하나의 성소에 묶여 궁극적으로 성전이 된다는 의미에서 신명기 12장을 읽었습니다. 모든 제물은 중앙 예배의 한 장소에 묶여 있었고, 예루살렘 밖의 모든 제단은 불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산당에서 가져온 제물은 모두 불법이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벨하우젠과 대부분의 성경을 믿는 주석가들에 따르면 신명기 12장은 예배의 중앙 집중화를 요구했습니다. 신명기 12장은 중앙 성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독점권은 성전에 있었습니다.

벨하우젠과 대부분의 성경신자들이 다른 점은 신명기 12장의 기록자는 모세라고 주장하는 반면, 벨하우젠은 최초로 산당을 없애고 제한을 가한 요시야 시대에 기록했다는 점이다. 예루살렘 성전에 제물을 바치라.” 따라서 Halwarda가 여기에서 가정하는 것은 예배의 중앙 집중화를 선언하는 장의 의미와 해석에 있어서 성경을 믿는 주석가와 벨하우젠 사이의 기본 합의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는 주석가는 모세가 (약 1400-1200 BC) 그렇게 썼다고 말할 것입니다. 벨하우젠은 그때가 요시야 시대(기원전 621년)였으며 산당을 없애고 예루살렘에 예배의 중심지를 만들려고 노력한 최초의 사람이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파에서는 이 장이 모세 시대에 위치하게 될 것입니다. 벨하우젠은 그것이 기원전 621년 요시야 시대부터라고

믿었습니다

. 벨하우젠의 예배 장소의 3단계: 다중 성소,

다중 성소에 대한 예언적 반대, 중앙집권화 포로 이후 벨하우젠이 621년을 세운 이유는 이러한 배타적 예배 규정이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론은 구약의 역사적 부분을 연구할 때 예배의 중심이 세 가지 식별 가능한 단계를 거쳤다는 견해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적 부분을 살펴보면 예배 장소와 관련하여 세 가지 식별 가능한 진화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단은 특정 장소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많은 제단과 예배 장소가 있었습니다. 사사기와 사무엘 시대에는 제단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산당을 차지한 것으로 보이며, 거의 모든 곳에 제단을 놓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그는 거의 모든 곳에서 종교 의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벨하우젠은 나중에 그 예배 장소의 기원이 특정 장소에 주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기존의 예배 장소에 대한 신의 승인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신현(Theophany)이라고 불렸으며, 이는 그 장소를 예배 장소로 합법화했습니다. 주님께서 베엘과 세겔에 나타나셨으니 그곳은 합당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예배가 다른 모든 곳을 배제하고 한 곳에만

국한된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벨하우젠의 초기의 보다 자유로운 종류의 예배에 대한 생각은 즉흥적인 종류의 종교와 감사의 표현을 불러일으키는 삶의 모든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처에는 희생이 행해지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두 번째 단계에 이르지 않는 않지만 초기 선지자인 아모스와 호세아의 영향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로운 숭배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언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들은 참된 예배는 황소와 염소의 피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삶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제사 활동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올바른 삶의 방식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윤리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제단의 다양성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제단에 모여들고 모든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의 도덕적 요구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단을 강조하는 종교에 위험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의식들. 선지자들의 이러한 반대 덕분에 (이것이 모두 벨하우젠의 이론이며 할와르다가 요약하고 있음) 산당은 그 의미를 잃었습니다. 더욱이 정치적 상황은 예루살렘을 서서히 전면으로 부각시켰다. 722년 사마리아가 함락된 후, 제사 준수와 관련하여 더 이상 북왕국과의 경쟁이 없었습니다. 거의 동시에, 선지자 이사야는 남쪽에서 예루살렘의 난공불락의 위치를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는 예루살렘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요인들이 합쳐져 예루살렘과 성전이 지배하게 되는 두 번째 단계로 이어집니다. 벨하우젠은 전체 종파를 근본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개혁과 집중을 시도했습니다. 이제 이 종파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선지자들이 반대했지만 완전히 없애지는 못해서 집중화하고 개혁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이러한 발전의 배후에는 바로 그 선지자적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본질적으로 종교적 관심의 서로 다른 영역인 치명적인 책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개혁과 집중의 문제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상호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은 수도에 예배가 집중됨에 따라 물질적으로 큰 이점을 누렸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개념과 관련해서도 같은 것을 장려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벨하우젠처럼 “벤엘의 신”, “브엘세바의 신”, 이 모든 곳의 신에 대해 말하는 것을 정말로 중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셨고, 예배를 드리는 합법적인 장소도 하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공통 영향력, 예언적 영향력, 제사장적 영향력을 통해 요시야가 산당과 예루살렘을 제외한 땅의 모든 곳에서 예배를 말살하려는 시도에 모두 동참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621년에 그의 대개혁이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나 그 시도는 실패할 운명이었다. 사람들은 성소에 붙어있었습니다

. 요시야가 죽자마자 예배가 이곳에서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벨하우젠에 따르면, 유배자들이 아니었다면 개혁은 결코 남아있는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면서 백성은 완전히 뿌리째 뽑혀지고, 그 땅에서 끌려가고, 예배 제도 전체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539년 고레스가 귀환을 허용하는 칙령을 내렸을 때, 전혀 희생할 수 없었던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전 시대의 낡은 관행에 따라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중앙집권적 교단의 개혁사상을 실현하기 위해 온 마음과 영혼을 바칠 수 있는 세대가 등장한 것이다.

그리하여 세 번째 단계가 시작됩니다. 유배 생활은 과거와 완전히 단절되었고, 유배와 귀환 이후에는 사람들이 더 이상 산당을 세울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의 예배 장소, 즉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야 한다는 이전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목표를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포로 생활 이후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한 예배 장소를 실제로 고수하는 시기입니다.

비. 신명기의 중요성 12 벨하우젠 이론 우리는 벨하우젠의 입장에 대한 배경을 설정하고 12장이 수행하는 핵심 역할을 이해하는 것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 장에서 말하는 것과 우리가 하는 일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 관해 할와 르다(Halwarda)가 쓴 기사

와 이 JEDP 이론에 대한 벨하우젠의 전체 구조와 관련하여 신명기 12장의 해석에 그가 부여한 중요성을 계속해서 요약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벨하우젠의 이론이 이스라엘 예배의 역사와 관련하여 세 가지 식별 가능한 단계를 거쳤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소의 다양성이 있었던 첫 번째 단계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성소의 다양성을 반대하고 예배의 중앙 집중화를 선호하는 선지자들의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포로기 이후, 포로기 이후 시대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다음 중앙의 독점적인 예배 장소를 설립하는 세 번째 단계에 도달합니다. 이것이 그가 대략적으로 그린 전개도였고 우리는 지난 수업 시간에 그것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씨. 이스라엘 예배 제단 위치의 3단계

#### 1. 법률 코드: 출 10:10. 20

따라서 그 시점부터 예배 장소와 관련된 이스라엘 예배 역사의 이러한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즉 제단의 다양성, 제단의 중앙집중화 등 벨하우젠이 보았던 발전이 있습니다. 이제 계속합니다. 벨하우젠은 역사가 이 세 단계로 움직일 뿐 아니라 주어진 법칙에서도 동일한 세 단계를 발견한다고 말했습니다. 예배의 역사가 그러한 순서로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율법에서도 동일한 세 단계가 표현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출애굽기 20장의 제단 법칙이 이론의 첫 번째 단계인 제단의 다양성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제단 법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이제 출애굽기 20장은 “언약의 책”에 나오며, 24절부터 26절까지에서 “너는 나를 위하여 흙으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번제물을 드리라. 너희 화목제물과 너희 양과 소를 내가 기록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희에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연장으로 그 위에 올리면 그것을 더럽히느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네 벌거벗은 것이 거기서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2. 신명기 12장: 한 곳에 집중됨 “그러나 내 이름을 기록한 모든 곳에”라는 문구에 주목하십시오. 주님은 그들에게 오실 것이며, 여러 곳에 세워진 제단은 그분이 거기에 세우신 묘사와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벨하우젠에 따르면 출애굽기 20장의 제단법은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다수의 제단을 전제로 한다. 그 법칙은 J와 E(JE 문서)에 귀속될 수 있으며 거기에 반영된 다양한 제단의 그림은 두 출처에서 제공한 역사적 그림과 일치합니다.

이제 더 나아가면 벨하우젠에 따르면 신명기 12장은 이교의 제사장소를 파괴할 것을 요구하고 주님을 한 곳에서 예배하라고 명령합니다. 따라서 신명기와 신명기 12장의 율법은 이 발전의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전에 논의한 것처럼, 벨하우젠은 요시아가 자신의 종교 개혁을 추진한 시기를 기원전 621년으로 봅니다. 그의 JEDP 소스 중 P만

남습니다. 그리고 Wellhausen에 따르면 P는 분명히 D보다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D에서는 중앙화가 명시적으로 명령되어 있고 따라서 여전히 기존의 반대 관행을 찾아야 하지만 P는 더 이상 그것에 강조를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P는 중앙성소 하나가 정상이라고 가정할 뿐입니다. 그 문서에는 단 한 곳만 있습니다. P에 따르면 다른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가정의 문제일 뿐입니다. 예배 장소는 하나이며, 제단이 많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P 시대에는 예배 장소가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거기에 동의해요. 그런 다음 그는 그것을 세 번째 단계, 즉 그것의 기원에 대한 포로 이후 시대에 할당합니다.

이제 그는 그 순서가 다른 문제에 의해서도 확인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루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벨하우젠 시스템의 힘은 단지 하나의 단일 지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에서 오는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송배의 진화는 수렴되는 많은 증거를 바탕으로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이론의 핵심인 한 가지 요소, 즉 역사적으로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예배 장소와의 발전과 관계입니다. 그는 기원전 621년이라는 확고한 날짜와 그 D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621년부터 그 이전까지 작업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621년 이후 다른 방향으로 이 포로 이후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물론 그 결과는 구약 전체에 큰 혼란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즉 오경입니다. 그는 오경을 JEDP 원본 문서로 나누었는데, 그 중 어느 것도 더 이상 기초가 되지 않습니다. 모세는 뒤따르는 모든 것의 *기초*가 아니라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는 결과입니다. 그분은 구약 종교의 역사에서 도달한 마지막 지점이십니다. 고대의 종교는 가나안 종교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가나안의 다른 신들과 다를 바 없는 신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벨하우젠 체계의 출발점은 모세의 계시가 아니라 초기 셈족의 이교이다. 벨하우젠의 체계가 하는 일은 이교에서부터 모세까지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성경적 구조에 따르면 시작은 무엇입니까? 즉 모세의 계시입니다. 벨하우젠에게는 '모자이크 계시'가 끝이다. 특히 유일신교, 예배의 중앙집권화를 향한 예언 운동,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의 의미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세부적인 의식을 포함한 레위 율법이 움직이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요점입니다.

### 3. 혁신가로서의 선지자

다중 예배소를 전면적으로 파괴하고 중앙집권화하는 과정에서 선지자들은 허공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은 더 이상 모세의 터 위에 서는 개혁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은 옛 방식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옛 방식을 다시 따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은 혁신가들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방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의 기능은 원래 이교에 반대하는 것으로 밝혀졌던 모세의 길을 옹호하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며, 이스라엘이 이교의 기원과 구별된다는 주장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초기 이교에서부터 윤리적인 설교로 백성들을 인도하였고, 마침내 그들을 모세에게로 데려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벨하우젠의 이론이 하는 일입니다. 선지자들은 윤리적인 설교를 통해 사람들을 이교주의에서 벗어나게 하고 실제로 그들을 벨하우젠 체제의 “모세” 인 “모세” 에게로 인도합니다.

## 2. Wellhausen의 Deut에 대한 Halwarda의 반응. 12 이론

이것이 기본적으로 Wellhausen 시스템에 대한 Halwarda의 평가입니다. 나는 그것이 당신에게 그것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유용할 수 있는 핸들링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Wellhausen의 *Prolegomena*를 읽으면 엄청나게 복잡한 책입니다. 나는 Halwarda의 발표가 그것의 의미 중 일부를 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Halwarda의 주요 요점은 Wellhausen의 이론에 대한 반대의 역사가 대부분 이 시스템의 핵심에 도달하기보다는 이 시스템의 다양한 세부 사항에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부 사항도 유용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Halwarda의 접근 방식에 따르면 이 시스템의 핵심은 “예배의 중앙 집중화” 문제이며 이것이 Wellhausen 전체 시스템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급했듯이 Halwarda는

그의 기사 시작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 주 너의 하나님은 택하실 곳’이라는 이 구절에서 우리가 현대 구약 연구의 근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성경 독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할와르다(Halwarda)가 자신의 주장을 과장했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에는 여전히 엄청난 의미를 지닌 뭔가가 있습니다.

#### 1. 역사서에 기록된 여러 제단 (참조, 왕상 18-19 장)

갈멜산의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 이제 그가 계속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그는 당시를 다루는 역사서에 예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사사기부터 역사서에 수많은 제단이 분명히 언급된 왕국 시대까지. 그는 각각의 경우에 서로 다른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불법이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불법적이고 법에 어긋나는 예배의 예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사사기 17장부터 미가가 장려한 예배는 사사기 후반부에 설명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레위인과 함께 개인 성소가 세워졌는데, 분명히 우상 숭배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불법적인 예배였습니다. 또한 느밧 의 아들 여로보암 이 그의 송아지를 벳엘과 단에 세운 것은 확실히 예루살렘 예배에 대항하는 예배 중심지가 되도록 의도되었으므로 죄로 정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이 기간에 수많은 제단 *자체* 가 정죄된 것이 아니라 승인되었다는 사실을 없애지는 못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 그는 여러 사례에서 이를 지적한다. 엘리야의 경우, 북왕국 아합 시대에 바알 숭배와 바알의 선지자들을 대적하던 때, 열왕기상 18장 갈멜산에서 백성들과 대결한 후 이세벨이 엘리야를 따라오자 그는 매우 강해졌습니다. 낙담. 그는 이세벨을 피해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10절에서는 엘리야가 동굴에서 쉬고 있을 때 주님께서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크게 질투하였사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들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니 나만 남았으니 이제 그들은 내 목숨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엘리야의 불평 중 하나는 백성들이 여호와의 제단을 복수형으로 헐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제단을 버리고 이방의 제단을 따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래지 않아 갈멜산에 엘리야가 직접 제단을 쌓았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1절에 “엘리야가 야곱 자손의 지파 수대로 돌 열두 개를 취하니라” 고 했습니다. 그는 그 돌들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제단 둘레에 도랑을 만들었습니다 .” 그런 다음 그는 기도했고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예루살렘 제단 외에 그가 건축한 것과 관련하여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조금의 힌트도 얻지 못합니다. 적어도 열왕기상 19장 10절에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유효한 비판의 요점이 그들이 여호와와의 제단을 파괴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비. 여러 제단에 대한 예언적 반대가 없음 Halwarda가 지적했듯이,  
우리가 여러 제단에 대한 예언적 반대에 대해 단 한 번도 읽은 적이 없다는  
것도 적어도 흥미롭습니다 . 제단의 다양성을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예언적  
메시지의 요소는 없습니다. 이제 그것이 문제라면 침묵으로부터의 논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적어도 이 문제를 무시한 선지자들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왜 선지자들은 제단이 많은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씨. 사무엘은 많은 제단을 가지고 있었다 사무엘서는 제단의 다양성  
문제에 관해 특히 중요합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개혁가였습니다. 그는 여러 제단을 쌓고 여러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서 그는 라마의 산당으로 가서 라마 성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 사무엘상 7장과 10장에서는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1장 15절에서 그는 길갈에서 하나를 제안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사무엘이 라마와 미스바와 길갈의 제단에 제사를 드린 것에  
대해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16장 2절에는 그가 베들레헴에서 제물을 바친 것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문맥을 살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네가 언제까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겠느냐? 그를 거절하여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느냐? 네 뿔에 기름을 채우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왕을 삼았음이라 가서 이새의 아들 중 하나에게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은 ‘내가 어떻게 갈 것인가?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일 것이다.’” 사울은 왕이었고, 그는 다른 왕에게 기름을 부을 것이고 사무엘은 그것을 반대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데리고 가서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노라 하라” 희생. 그것은 사울에게 전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제사”가 받아들여짐      다음의 경우, 다윗이 기름부음을 받고 사울이 여전히 왕이 된 후에도 사무엘상 20장에서 다윗은 사울의 식탁에 있는 자기 자리에 없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다윗이 들에 숨었다. 초하루가 되매 왕이 자리에 앉으니 왕도 전과 같이 자기 자리 곧 벽 곁 자리에 앉았더라 요나단은 일어나고 아브넬은 사울의 곁에 앉았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 그러나 그 날 사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니, 깨끗하지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확실히 그는 깨끗하지 않다.’” 즉, 그가 의식적으로 올

수 없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기 때문에 일종의 제사 식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이 오늘이나 어제나 식탁에 오지 아니하였나이까.'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합니다. '다윗이 나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를 가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이 이 도시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동생이 나에게 거기 있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왜? 희생을 바치기 위해. 그의 형이 그에게 명령하여 거기 있으라 하였으므로 그 때에 그가 사울의 상에 앉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지방 제물은 그 당시의 풍습이었던 것 같으며, 누군가가 제사를 드리러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보면 율법에서 어긋나는 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자형. 신명기 12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려는 다윗의 소원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가 불안정한 시대였다고 말합니다. 성전은 아직 건축되지 않았는데 신명기 1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안전하게 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한 곳이 있을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얻은 후에는 중앙집권적인 예배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가 이렇게 말하고, 사무엘하 7장 11절이 그러한 조건이 실현된 지점이라는 주장이 너무나 자주 제기됩니다. 사무엘하

7장은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집이나 전을 건축하겠느냐고 물었을 때 여호와께서 영원히 세우실 그의 집 또는 왕조에 관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들어 있는 장입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사사들을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여 너희로 모든 대적에게서 평안함을 얻게 한 것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로 집과 왕조를 세울 것이라 말씀하시느니라” 고 했습니다. 이제 일부 사람들은 사무엘하 7장 이전에 여러 개의 제단을 인용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시고 예배의 중심이 잘 기능할 수 있는 평화의 상황이 확립될 때까지 여러 개가 허용되었기 때문에 승인되었다고 주장하려고 했습니다.

에프. 압살롬과 헤브론 성소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엘리야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압살롬은 예를 들어 사무엘하 7장 11절 이후에도 헤브론 성소에서 혁명을 조직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서 다윗은 제사를 드리러 다른 곳으로 가는 것에 대해 크게 당황하지 않고 서원을 이행하기 위해 헤브론으로 가고자 하는 아들의 소원을 승인합니다. 사무엘하 15장 7절 “40년 후에 압살롬이 왕께 고하되 청하건대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서원을 헤브론으로 가서 갚게 하소서” 주의 종이 아람 그술 에 있을 때에 서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그것을 그의 아들에게 허락하고 압살롬에게도

허락하였나니 헤브론으로 가서 반란을 일으키지만, 헤브론으로 간 계기는 다시 서원을 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다.

g. 안식과 처소는 솔로몬 시대에만 가능함 - 여호수아의 날은 없음 또한, 이것은 사무엘하 7장 참조에 대한 할와다의 반응입니다. 만일 외부의 적들이 이 안식과 평화의 문제를 의미한다면, 신명기 12장의 적용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동안에만 가능합니다. 솔로몬 시대와 그 후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왜냐하면 외부 적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이스라엘 국가 역사 전반에 걸쳐 거의 끊임없이 외부 적으로부터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부적의 위협이 전혀 없는 기간은 짧았다 . 그래서 할와르다는 신명기 12장에 언급된 나머지 부분은 외부 적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부 적에 대한 것이며, 그 조건의 성취는 실제로 가나안 정복이 끝난 직후 여호수아 22:4에 언급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22장에는 두 지파 반이 본토로 돌아간 후 4절에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너희에게 준 너희 소유의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나 부지런히 주의하여 계명과 율법을 행하라.” 그래서 그는 신명기의 약속에 언급된 “나머지” 가 다윗 시대보다 오래 전에 성취된 것을 봅니다. 그것은 여호수아 때에 성취되었습니다.

좋아, 그럼 조금 더 나아가 보자. 출애굽기 20:24-26절, 거기에 나오는  
규정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Angie Sykeny가 각본을 맡았습니다.

거친 편집: Ted Hildebrandt

Perry Phillips 박사의 최종 편집

페리 필립스 박사가 다시 해설함